

경제

전남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전국 최고

올해 16.4% 늘어...光銀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활기 영향”

전남의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올해 비수도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데 수도권 주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탓이다.

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62조8000억원이었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9월 말 383조4000억원으로 5.7% 늘었다. 수도권 주택대출은 255조9000억원에서 266조2000억원으로 4% 증가

했다. 비수도권은 106조9000억원에서 117조2000억원으로 무려 9.6%나 급증했다.

비수도권의 주택대출 총액은 수도권의 절반도 안된다. 그러나 올해 증가율은 10조3000억원으로 수도권과 같았다. 두 권역의 주택대출 증가액이 비슷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택대출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부산으로 올해 2조7000억원 급증했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대전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대출 증가율은 전남(16.4%), 경남

(13.3%), 대전(13.1%), 부산(12.7%) 등이 높았다.

또한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광주지역 주택담보대출은 1조4406억원이었으나 동기 대비 올해는 1조7846억원으로 3440억원이 증가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 대출 증가 원인에 대해 “최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와 확정주공 세대가 따른 중도금대출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주택대출 급증 현상은

지방 집값의 강세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4%, 수도권은 0.6%에 그쳤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상승률은 14.6%에 달해 ‘폭등세’에 가까웠다.

최근 수년간 주택 신규 분양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의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점, 지방 거주자의 빚이 적어 주택대출 여력이 큰 점 등이 지방 집값 강세의 주요 요인이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빚은 무려 7336만원에 달했다. 비수도권 거주자(3241만원)의 갑절 수준을 훌쩍 넘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장철 위생점검

광주 북구 위생과 직원들이 6일 김장철을 맞아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내 젓갈 등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위생 점검은 19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실시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쌀·돼지 담보로도 은행 돈 빌린다

내년 6월부터 시행

2012년 6월부터 공작 기계나 농축산물 등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6일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이다.

기계기구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 시설·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엄격히 재고가 관리되는 원재료·완제품으로는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한선 60~80%의 담보비율을 인정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전자방식의 ‘기업간(B2B) 채권’은 제외된다.

담보 감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시세나 은행의 신용도 평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ERP 전문교육단 오늘 출범

(전사적자원관리)

생산성본부 광주센터

한국생산성본부는 7일 광주지역 ERP(전사적자원관리) 자문 및 전문 교육위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생산성본부는 ERP 교육을 확산시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학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날 1차로 8명의 지역 교수들로 교육위원단을 구성했다.

선임된 교수는 전남대 정용기 교수, 광주대 박준호·이수만·조유근 교수, 조선대 조승제·신춘우 교수, 호남대 이화진 교수, 한영대 성갑열 교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들은 각 대학 ERP 인재를 대한 양성교육과 학술활동은 물론 기업의 컨설팅에도 참여해 효율적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KPC지역 전인호 광주지역센터장은 “기업의 모든 자원을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계획·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이 갈수록 요구된다”며 “지역에도 ERP 전문 교육단이 출범하게 돼 기업들이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양도소득세 종과세 7년만에 폐지

최저가낙찰제 2년 유예·국민주택기금 대출 완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과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과천 청사에서 권도업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 시장 안

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번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종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 양도세 종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

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조달우수제품협 총회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이성남)은 6일 광주 리미티드호텔에서 호남지역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60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광주·전남북지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광주조달청 제공>

한은 광주전남본부 내일 지역경제 세미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장택규·사진)는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강당에서 ‘2011년도 지역경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광주·전남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사회는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는 류정자 한

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과 민현정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한은 광주전남 본부는 지난 1992년부터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및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S&P “유로존 15개국 신용등급 강등”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5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중 독일과 프랑스 등 15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로존 회원국 중 키프로스나 그리스 등 15개 회원국을 ‘부정적 관찰대상(Creditwatch Negative)’에 올렸다고 밝혔다.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오른 국가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코스피지수	1,902.82 (-20.08)
코스닥지수	502.59 (-3.23)
금리 (국고채 3년)	3.34% (-0.04)
원·달러 환율	1,131.20원 (+1.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행복한 광주 7도농도시

심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침묵의 살인자!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조기검진으로 합병증을 예방합시다.

광주시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실천 전략!!
“당뇨합병증 ZERO 도시 만들기”를 위해 당뇨합병증 검사를 무료로 해 드려니 참여하세요

- 참여대상 : 30세이상 시민(당뇨질환자 우선)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 시청 및 5개 보건소
 - 광주광역시 ☎ 613-3343
 - 동구보건소 ☎ 608-2774 • 서구보건소 ☎ 350-4175 • 남구보건소 ☎ 650-8417
 - 북구보건소 ☎ 410-8195 • 광산구 ☎ 960-882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

- ①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 ②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 ③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④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 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⑥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 ⑦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⑧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 ⑨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